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2척 4,035억원 규모 수주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총 4,035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22일 공시함. 해당 선박들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한국경제)

현대삼호중공업, 6,072억 규모 LNG 운반선 3척 수주 계약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파나마 소재 선사와 6,072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함. 이번 계약금액은 지난해 말 매출액 대비 17.41%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24년 9월30일까지라고 공시됨. (아시아 경제)

Byzantine Maritime books LPG carrier newbuilding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의 Byzantine Maritime으로부터 40,000CBM급 LP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2년까지라고 보도됨. Byzantine Maritime은 이미 지난해 말 38,000CBM급 LPG선을 2척을 발주한 바 있으며 당시 계약 선가는 4,690만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한화시스템, 2,364억원 규모 차기 구축함 전투체계 개발 계약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전투체계 종합체계 및 전투관리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공시함. 계약금액은 2,364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5.3% 규모이며 2029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도됨. (조선비즈)

향후 10년간 해체량 급증

새로운 국제 환경 규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선박 해체량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사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종전 기준으로는 운항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선박도 새로운 환경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2030년경에는 해체 선박이 2020년 수준 대비 75%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Capital, 현대중공업에 '컨'선 발주

한국조선해양이 21일 수주 공시한 13,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의 선주는 그리스의 Evangelos Marinakis 산하 Capital Maritime & Trading이라고 보도됨. 전통 연료방식으로 발주되었으나, 추후 LNG 추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